

 보건복지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b>배 포 일</b>	2020. 4. 9. / (총 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이 선 영 조 영 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정 영 기 송 정 아 최 경 순	전 화	044-202-3595 044-202-3598 044-202-359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학원, 클럽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계획(경기도)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 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 1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금(概算給) 지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7)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이번 개산금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 이번 1차 개산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으로,
  -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3.~4.5.)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845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연 인원 12,582명 투입, 37,803개소 점검

\*\* 행정지도 4,845개소 (PC방 727, 노래연습장 3, 클럽·유흥업소 2,259, 실내체육시설 936, 학원 920) 집합금지 행정명령 1개소 (클럽·유흥업소1)

○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제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향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야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야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 고가 몸값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는 위급상황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정쟁을 끝내 판타지 하우루도 임시 선별진료소들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나 듣는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지친 의료진의 목소리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부총리(왼쪽)는 의료인들 마스크 보급을 돕고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며 의료인들 호소에 “쌍자고  
 고”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후식과 일부 의  
 사는 보복으로 인해 대신 수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는  
 정부는 보 의료인과 함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큰  
 손해산 청구를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능후는  
 술산 17세 소년(가명)과 19살 양부모들이 한 차례  
 고소 일주일 전까지도 의료인 나자 금자 잘못했다  
 바 변형 전사서 배례를 지시했다. 회화한 일도 있  
 었다. 도주자라는 못할망정 쪽을 깨려 들어사라  
 되었다. 그는 대변자의 사죄를 “나서 달라고 오소하더  
 가 사장이 좋아지나”라며 군더더기 없는 모습으로 임  
 진태라 비정장들에게 누른쪽 씌운 무능한 주조관  
 리를 연상케 했다. 고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막대한 현금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전·안상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답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는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국인은 해외에서 합법화돼 이상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Figure 1**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표현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 백경란 이사장은 “다른 나라에 이미 한국을 막았으니 상호우호에 입각해 금지를 말라, 외국인이나 치료받은 일부라 국외로 들어온다고 한다”는 말도 했다. 외교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사회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경제 발전 정도,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라별 대응도 일국자료를 차치하면, 2020년 10월 15일 기준, 100개 나라의 201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미국이 1인당 GDP가 가장 높고, 나이지리아가 가장 낮고, 일본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GDP는 2019년 1인당 GDP가 69,400달러로, 나이지리아는 1,000달러, 일본은 39,000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의 GDP는 나이지리아의 GDP보다 68배, 일본의 GDP보다 1.7배 높았다. 미국의 GDP는 나이지리아의 GDP보다 68배, 일본의 GDP보다 1.7배 높았다. 미국의 GDP는 나이지리아의 GDP보다 68배, 일본의 GDP보다 1.7배 높았다.

한미교섭에 대해서까지 일관되어있을 조처를 하기로 한 이유이다.

실례가 이런데도 한국 정부만 일국제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김영철 차관' 요구가 빚발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든 해외 일국자 2주간 외국취외로 잠진'하는 일이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roy@korea.net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